

폭염탈출 '올빼미족' 대형마트 몰린다

이마트·편의점 등 고객 20~30% 늘어

영업시간 연장·포인트 적립 등 이벤트

광주지역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더위를 피해 야간에 쇼핑을 즐기는 '올빼미 족'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매출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저녁 9시~12시 사이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지난 5월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7월 들어 30% 가량 늘었다. 올빼미 쇼핑객이 늘면서 여름상품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수박이 23.5%, 선종기는 19.8%, 아이스크림이 16.8% 매출이 늘었다. 여름 액세서리도 19.5% 늘었고 막걸리와 맥주도 16.4%, 건강관련 상품 매출도 21.5%나 증가했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유통업체들은 '밤 손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7월부터 저녁 8시가 되면 전점이 '리오픈(문을 다시 여는 것)'을 한다. 심야 쇼핑객이 늘면서 오전에 새로 문을 여는 수준으로 매장에 물건을 채워놓는 것이다.

홈플러스 동광점들은 22일부터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홈플러스의

'돈버는 쿠폰북' 안에 포함돼 있는 '야호(夜好)쿠폰'를 지참한 고객에게 홈플러스 포인트 카드의 포인트를 3배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상무점은 올빼미 쇼핑객을 위해 오는 8월21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늦춰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한다. 장맛비가 내려야 할 시기인 7월 초, 예년과 다르게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편의점 이용객과 매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웨비마트와 GS25도 심야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심야 제품 발주를 20~30% 높였다. 열대

야가 시작되면서 야간에 음료수나 맥주, 아이스크림 등의 상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마트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져 야간 쇼핑객이 증가하면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심야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야간 쇼핑객을 위한 타임서비스 등 올빼미족을 위한 마케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야간 쇼핑객 북적

무더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된 21일 밤 광주시 서구 관천동 신세계 이마트 매장이 더위를 피해 야간에 쇼핑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DTI 부처 이견 ... 부동산 대책 연기

주택거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 ... "8월 중순께 발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중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포함해 각종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간 이견이 잇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DTI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며 DTI 완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윤러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보급 자리 주택 공급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다"며 수도권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 끝나고 개학과 이사철을 앞둔 8월 중순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잔업거부

오늘부터 돌입 ... 광주공장 2000여대 생산 차질

기아자동차 노조가 주말 특근에 이어 22일부터 잔업마저 거부하기로 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과 7월 주말 특근 거부로 광주공장에서만 스포티지R 등 5700여대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한데다 이날 오후부터 잔업 거부에 들어가면 7월 2200여대의 추가 생산 차질이 예상돼 고객 불만은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이 이날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난 14일 제2차 평의대책위원회의 결정대로 22일부터 주야 2시간씩 잔업 거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평일 10시간씩 근무하던 기아차는 8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노조는 또 오는 29일 노조 간부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와 항의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그레도 이달 말까지 회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휴가 기간(8월2~6일)이 끝나는 다음달 9일 3차 쟁대위를 열어 향후 파업 일정과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사 측은 21일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타임오프제 관련 특별단 체교섭을 열고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가 불참, 또 다시 무산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 차상위계층 128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조건 차등화 시범지구인 장성 영천2지구 국민임대아파트 128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장성 영천2지구는 36㎡형 314가구, 46㎡형 142가구 등 총 456가구로 구성됐다.(조감도)

이번에는 36㎡형 122가구와 46㎡형 6가구를 다음달 3일부터 2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센터(062-380-0400~1)이나 보급자리주택 홍보관(062-380-040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업 불공정행위 특별조사

공정위, 내달부터 단가인하·기술탈취 등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최근의 '기업 양극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들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를 끌어가고 있으나 그 혜택이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양극화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특

별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한 뒤 8월부터 단가인하 강요, 기술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가를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별도로 구성, 이달 초부터 전국 150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 등 완성차업계 휴가철 무상 점검 서비스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합동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피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경포대해수욕장과 충남 꽃치 해수욕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합동으로 임시코너를 운영한다.

임시코너에서는 엔진·브레이크·타이어 점검, 냉각수·각종 오일류 보충, 와이퍼블레이드 등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같이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세계 2차전지 시장

삼성·LG, 日 따돌린다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을 맹렬히 추격해온 삼성과 LG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차전지 시장에서 18.5%(출하량 기준)의 시장점유율로 산요(20.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삼성SDI는 올해 스마트폰 열풍과 일본 엔화 강세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산요를 누르고 1위에 등극할 전망이다.

미국 GM과 포드자동차에 전기차용 2차전지를 공급할 예정인 LG화학도 지난해 처음으로 13.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간발의 차이로 소니

(12.1%)를 누르고 3위에 올라선 이후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GM과 포드에 이어 조만간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도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소니와의 격차를 더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모아 인터넷공동예금' 光銀 30일까지 한시 판매

광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10일 동안 총 50억원 한도의 'e-모아 인터넷 공동예금'을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모집기간 동안 공동으로 예금을 들고, 모집금액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온라인 전용예금이다. 최저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모집금액 단위에 따라 최고 연 4.0%의 금리가 확정된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48.78 (+12.01)
▼ 코스닥지수	496.73 (-2.99)
▼ 금리 (국고채 3년)	3.87% (-0.05)
▼ 원·달러 환율	1,204.60원 (-1.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무등빌딩 임대문의 062-222-0527

전면 330명 / 층 사무실, 판매시설